



참새들의 만찬 7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의 농경지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이 밭벼 나락으로 만찬을 즐기던 중 인기척에 놀라 날아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포커스 흔들리는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

풍력자원 공공 관리체계 ‘흔들’… 논란 예고

추자해상풍력발전, 1300억 규모 이익공유금 발목
투자배당 대체 시 공유화 정책 후퇴 논란 불가피
道 “공유화기금 완화·도민 수익 연계… 조례개정”

제주도가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방식을 주민·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개편할 뜻을 밝히면서 10여년간 이어져 온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풍력정책**=제주 풍력정책의 기본 원칙은 ‘바람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는 데 있다. 2011년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풍력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정책이 추진됐다.

개발이익의 공유화 과정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7% 수준이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201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례’를 제정해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에 따라 내놓는 기부금 등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달라지는 정책**=위성곤 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사업자가 낸 기금이) 제주도로 귀속되는 구조로는 (2.37GW 규모의) 추자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한림해상풍력처럼 도민 누구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가 밝힌 주민참여형은 주민·도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 등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이다. 추자 주민에게 투자 우선권을 주고 이후 제주도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추자해상풍력사업의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원인으로 전력 계통 문제와 연간 최소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금 납부 조건을 지목했다.

▶**문제점**=공유화기금은 공공자원을 이용해 얻은 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다. 반면 주민참여형은 주민·도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 등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다. 이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는 도민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될 수 있고, 공유화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환원하면서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은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사업성을 이유로 공유화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투자배당으로 대체한다면 10여년간 이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의 후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한 풍력 발전사업 전문가는 “공유화기금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도민도 풍력자원이 창출하는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사

업성 확보를 이유로 공유화 원칙이 후퇴한다면 어떻게 마련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체계가 향후 사업자 편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공유화기금은 사업자가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공모 당시 이익 공유 조건이 강화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이익 공유 절차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이를 주민참여 사업으로 도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까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러한 대응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지역책임택시, 10월 구좌읍서 시범 운행

앱·전화로 호출… 저녁엔 목적지 제한 없이 이용

민선 9기 위성곤 지사의 공약인 ‘읍면 지역 지역책임택시’가 10월 부터 한 달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에서 시범 운행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이 부르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가 곧바로 배차되는 ‘수요응답형’으로 운영되며 ‘티머니GO’ 앱이나 대표 호출 번호인 ‘064-742-8282’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주시 구좌읍 일원에 책임택시 10대가 전담 배치된다.

주민 생활 패턴에 맞춰 오전 7시(오전 7시~오후 3시)에 3대, 오후 3시(오후 3시~오후 11시)에 7대가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오후 6시 전에는 간선버스 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 거점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목적지 제한 없이 지역 안 어디로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책임택시 차량 옆면과 대시보드에는 ‘도민과 행정은 친구사이(064-742-8282)’ 홍보 표지가 부착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을 이행하는 첫 사업으로 중산간 읍면 지역의 이동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사업에 앞서 9월 중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버스정류장과 리사무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닿지 않던 중산간에서도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챙기겠다”며 “‘742-8282’라는 번호처럼 도민이 부를 때 빨리 달려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저녁 시간대 이동까지 돕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2026 JDC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한라일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올해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총 2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9월 12일(토) 오전 10시~낮 12시
▶**장소** : 한라일보 3층 회의실(제주시 서로로 154)
▶**모집대상** : 20명 내외(초등학교 1-3학년, 선택수업 마감), 참가비 무료
▶**신청기간** : 9월 11일(금)까지
▶**접수방법** : 링크 (https://forms.gle/FYRaBFyTwyMfsvTLA) 또는 QR코드
*선택수업 접수인만큼 접수 후 꼭 확인 전화 또는 문자
▶**교육내용** : 그림책과 NIE 다르다고 이상한 걸까? 같은 그림, 다른 제목
▶**문의** : 010-4369-3011

공동기획 : 한라일보 · JDC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행정위원
예산남비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부당한 행정사례 없나?

2026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민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접수기간 '26. 9. 7.(월) - 9. 23.(수)
※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455회 임시회 기간 중 ('26. 10. 6. ~ 10. 19.)

도민의견 접수내용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요구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 행정·교육 전반에 관한 불편사항 등

접수방법

- 도의회 누리집 (www.council.jeu.kr) 접수
 - 누리집 >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 수렴
 - 게시판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 처리결과 등록
- 전화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해당 상임위원회(전문위원회)별 접수창구 운영